

오늘(3월 23일) 제주 벚나무 개화

- 작년(3월 22일)보다 1일 늦고, 평년(3월 25일)보다 2일 빠름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이용섭)은 제주 벚나무가 3월 23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. 이는 작년보다 1일 늦고, 평년보다 2일 빠르다.

구 분	2024년	2023년	평년값
개 화	3월 23일	3월 22일	3월 25일

※ 제주도 벚나무 개화 기준: 제주지방기상청(제주시 만덕로6길 32) 내 표준관측목을 기준으로 하며,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'개화'라고 한다.

- 벚나무의 개화는 3월 기온, 일조 등의 영향을 받는다. 평균기온, 일조시간은 평년과 비슷하였으나, 3월 중순부터 최고기온이 14℃ 이상 오르면서 벚나무가 개화하였다. 통상적으로 개화 후 약 일주일정도 후에 벚꽃이 활짝 핀다(만발).

(제주시 건입동 기준, 3.1.~3.22.까지)

요소	2024년	2023년	평년값('91~'20)
평균기온(℃)	9.5	11.9	9.4
평균최고기온(℃)	13.2	16.6	12.9
일조시간(hr)	5.7	7.1	5.2

담당 부서	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	책임자	과 장	김길엽 (064-909-3950)
		담당자	주무관	최지희 (064-909-3956)

